

대행 스님

우리 마음부터 헤아려야 부처 마음도 우주 만물만생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다

질문자1(남) 스님,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번 날 냉수를 제가 한 컵 마셨더니만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근데 그 기분에 온 세상이 다 시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 한생각이면 모든 것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스님 본래 우리가 공생,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고 돌아가고 있지요. 그건 대의적인 문제고요. 내가 한생각을 내서 옆의 사람도 못 보던 거를 알게 됐다, 또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면 내가 시원하니, 딴 사람도 다 시원할 거다 하는 것도 내가 시원하기 때문에 다 시원한데, 나는 시원한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시원한 걸 모릅니다. 대의적으로는 다 시원하게 돌아가는데, 이 뜻을 아는 거는 다 돌아가고 있는데 한 개체가 "난 시원한 걸 모른다." 이런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난 밝은 걸 모른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그럼 그 밝은 걸 모른다 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나?

그걸 비유하건대 만약에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항상 추격을 받고 있어. 그랬을 때, 그 양심이라 할 때 도둑은 어딜 가도 밝은 대로로 다니길 꺼려합니다, 잡힐까 봐. 항상 골목으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골목으로 이렇게 다니길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밝아도 밝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컴컴한 데서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고 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고 저지르고 가는 것은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는 빼놓고 항상 바깥으로 돌아치니까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업보가 되는 거죠,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깐 그게 쌓이고 쌓이고 덮치기로 붙었으니까 내가 밝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볼 수가 없고 그게 덮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보이긴 뭐가 보여? 바깥이 영 보이질 않지. 안에 그렇게 그냥, 내 면경 안에 그냥 쌓이고 쌓였으니까. 그러니깐 컴컴하단 말입니다. 뭐, 꼭 도둑질을 해서만이 컴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달리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바깥으로 내가 잘되려고 하고, 믿음을 바깥으로 가진 사람들은 보통 미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잘잘못이 타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의에서 나오고 있단 얘깁니다. 자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의에서 나오는 거를 알았으면 이 모든 걸, 오관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내다보면서 들이는 것도 바로 그 자의에다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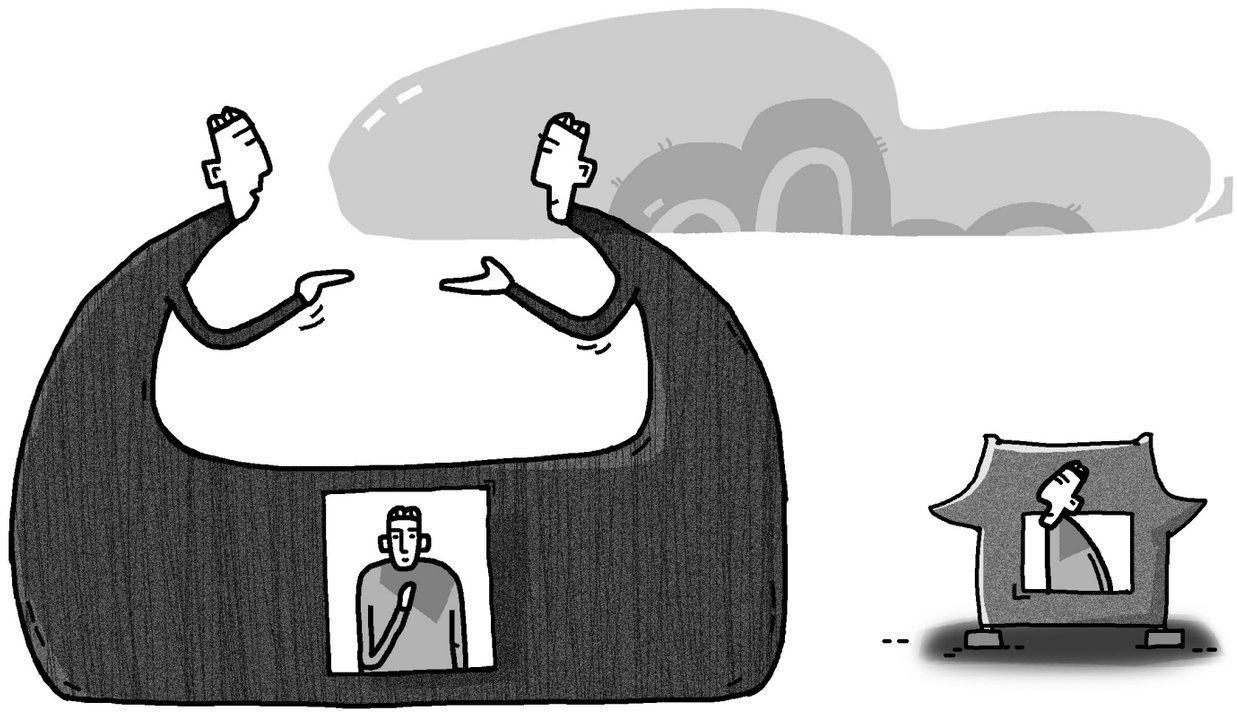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타의라는 거는 물론 체가 있고 보이고 또 들리고 이러지마는, 그리고 물질을 보고, 듣는 거를 듣고 판단을 하지마는, 자의라는 거는 내놓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가운데서 책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자기 자의에 놓는다면 자의에서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자의에서 나왔다면 자의에 들이고,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만이 조금도 안팎이 군더더기가 붙지 않고, 인과가 없고, 인과에 끄달리지 않고,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즉 유전에 끄달리지 않고 얼마나 그냥 가벼운지….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지 않고 이러니 얼마나 가볍고 좋겠어요. 오늘의 자유인! 허허허…. 그래서 오늘의 자유인이 되니까 결국은 '내가 나로다가 고정되게 있지 않더라.' 그런 걸 알게 돼요.

내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중인데 고정되게 중으로 있질 않더라. 여러분이 볼 때는 항상 봐도 중은 중이죠. 이 물질로 봐서는요. 그런데 어떤 때 가서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땐 간호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땐 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땐, 극치적으로 무슨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변호사도 될 수 있어요. 변호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을 추적해 보느라고 판사도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시골의 한 농부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술집의 작부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어찌 중이라는 게 깨끗한 것이 중이냐는 얘깁니다. 아니,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올려놓는 것만이 어떻게 부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농부 짓을 했다가…. 그런데 남은 내가 농부 짓을 하는지 모르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부동해, 여기는 그대로.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게 바뀌져. 내가 수시로 바뀌져. 예를 들어서 나의 근본, 즉 말하자면 발전소는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전기가 나가도 나가도 줄지도 않아. 야, 저 집에도 전기가 나가고, 거지 사는 데도 전기가 나가고, 술 파는 데도 나가고 전기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가발전소는 술집에 전기가 나간다고 해서 발전소 그 자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죠? 불 자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또.

더러운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깨끗한 거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마음만 응달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다 비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태양빛을 받으려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옆도 없고 지붕도 없어야 되는데, 만날 옆도 막아 놓고 지붕도 해 놓고 문도 꼭꼭 걸어 잠가 놓고 하니까 빛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치 못한 저 똥구덩이 퇴비 해 놓은 데, 하치 못한 그 어렵게 사는 집들, 문짝도 변변치 않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런 데는 볕이 들어갈 수 있어. 하물며 똥구덩이에도 비춰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 놓으니깐 못 들어가지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야. 볕이 들어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응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누가 활용을 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데 뭘 알아서 해 줘요? 부처님이다 함은 자기 영원한 생명, 그 불성 자체라니까요. 그러나 씀씀이를 쓰는 것은 생각을 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의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하죠. 쓰고 안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그 생명은, 일체 만물의 그 생명은 다 같다는 얘깁니다. 그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날까지 억겁을 통해서 진화돼서 이렇게 나오면서, 모습을 찰나찰나 바꿔 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바꿔 가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공부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날까지 바꿔 왔습니다. 찰나찰나 모습을 바꾸면서 왔어도, 즉 모습이 바뀌지는 거는 자기 마음이 '야,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생활을 할 때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요렇게 바뀝니다.

공장을 하는 데도 기계가 인제 다됐다, '이건 다됐고 앞으로 신품이 나오는데 이 구품을 가지고 하려면 물품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신품을 들여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기계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또 내버리는 거냐?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재생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바뀌지면서 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찰나찰나 모습을 바꿔 가면서 나퉈 나오지만, 진화되지마는 우리의 마음 근본만은 절대로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가 없다 이겁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억 개로, 즉 말하자면 내가 화해서 만법을 응용한다 할지라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음을 '아, 저기는 지금 열 식구가 한 식구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깐 저건 내가 안락사를 해야겠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락사를 해야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이, 저 사람 하나만 없으면 다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할 때에 그건 안락사라고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건 사람이, 즉 말하자면 교육상으로 가르칠 때에 안락사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지 그건 정말 안락사가 아니에요. 이름이야. 내가 '저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저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을 무심코 그냥 할 때, 그건 이름도 성도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든

☞ A30면으로 계속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실 설악 무산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낙산사 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낙산사 신도회(관음회, 보현회, 바라밀회, 의상회, 합창단)
강원지역 대불련(강원대, 한림대, 지역단)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터 / 양양군노인복지관 /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 양양군가족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Tel 033)672-2447~8 www.nsksansa.or.kr